



인도

2026년 7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증시 단기 체크포인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문순 진행 상황, 2)FY2027년 1/4분기 실적 확인 필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인도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유가 상승은 경상수지 악화, 물가 부담 확대, 루피화 약세 압력 등으로 이어지며 인도 펀더멘털 전반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 측면에서도 유가 하락과 루피화 약세 압력 완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일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본격적인 순매수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신흥국 내에서도 A+반도체 등 단기 모멘텀이 뚜렷한 시장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 복귀를 위해서는 유가와 환율 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 고유의 투자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도 증시의 핵심 투자 논리는 여전히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내수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도의 중장기 매력도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기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순 진행 상황이다. 문순 강수량은 인도 경제와 증시에 있어 단순한 기상 지표를 넘어, 농촌 소비와 식품 물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인도는 농촌 인구 비중이 높아 농가소득과 농촌 소비가 전체 내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순이 평년보다 부진할 경우 카리프 작물의 파종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소득 둔화와 농촌 소비 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작황 부진은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 물가 부담이 확대될 경우 가계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소비 회복세도 제약될 수 있다. 인도 문순은 통상 6월 말~7월 초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2026년 6월 누적 강우량이 평년 대비 40% 부족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초기 부진을 시사했다. 향후 문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누적 강수량 부족분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주요 농업 지역의 강수 정상화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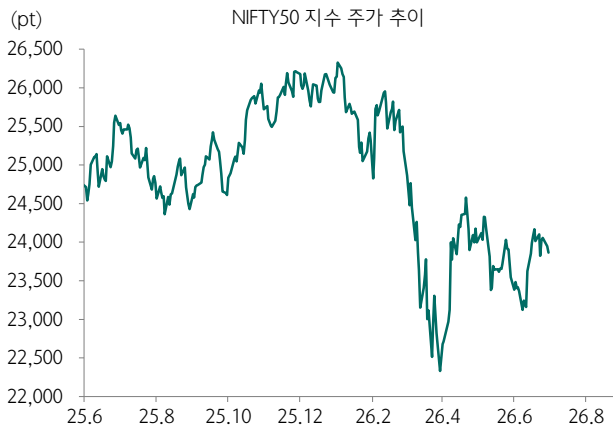
둘째, 내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다. 7월 FY2027년 1/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이번 실적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이후 기업들의 방어력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만, 7월 9일 TCS를 시작으로 IT 대형주 실적이 먼저 발표되는데, 해당 업종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보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IT 대형주의 실적 또는 가이던스가 부진할 경우 시즌 초반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IT 이후 발표될 금융, 소비, 인프라 등 내수 관련 업종의 실적이다. 관련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확인될 경우, 인도 증시의 중장기 투자 논리를 뒷받침해 온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외 변수로 제한됐던 인도 증시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인도 증시는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수급 부진으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구간에 있다. 다만, 향후 문순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물가 상승 리스크가 제한되고, 내수 업종의 실적이 견조하게 확인될 경우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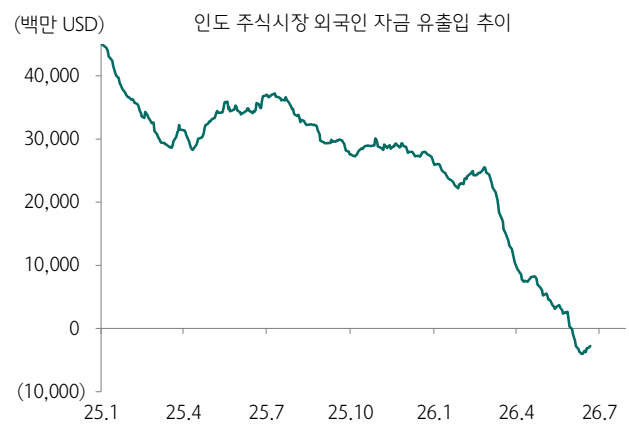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도표 1.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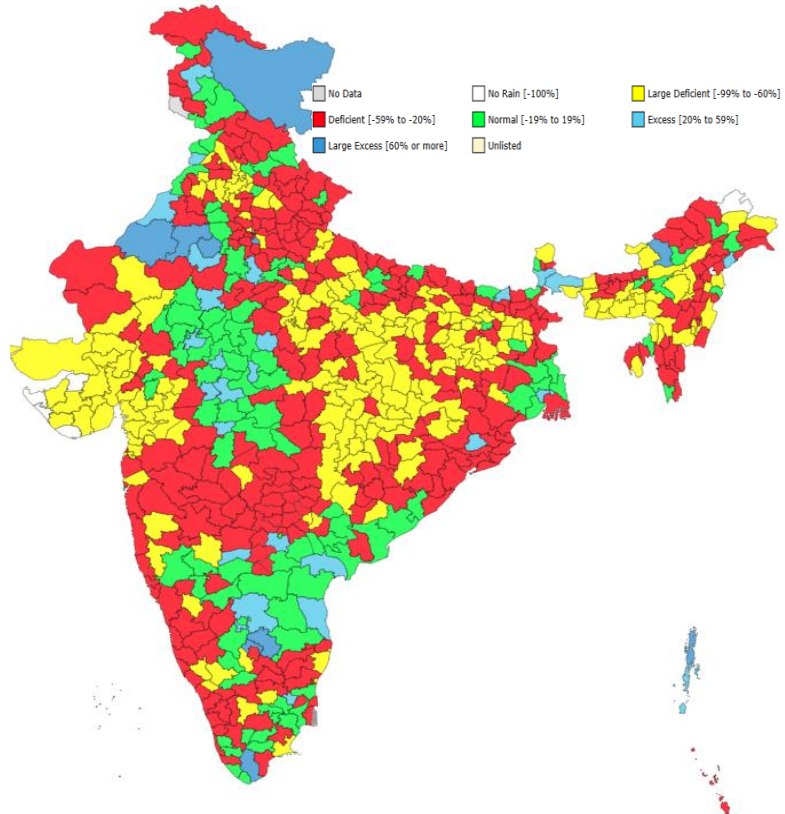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기상청(IMD) 몬순 시즌 6월 강우량



자료: IMD, 하나증권